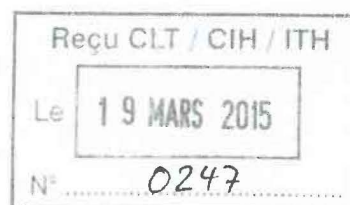


annex 2: Consents

consent



From olden times Ssirum has been a precious national heritage for the Korean people, which develops strength and valor, wisdom and the might of unity.

Today, under the right policy of our Party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heritage, Ssirum is actively promoted and has become an inseparable part of our people's life.

With the belief that inscription of the element on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completely conforms with the international 2003 convention and will provide a good opportunity for protecting the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we consent to its nomination.

Ryong Ju, director general, NAPCH

Hyen Sang Ju, Chairman, Central Committee of the General Federation of Trade Unions of Korea

Ri Myong Gil, Chairman, Central Committee of the Union of Agricultural Workers of Korea

Chon Yong Nam, Chairman, Central Committee of **Kim Il Sung** Socialist Youth League

Kim Yong Hun, Minister of Physical Culture and Sports

Jon Kwang Chol, General Secretary, Korea Ssirum Association

Hwang Yong Bo, Chairman, Central Radio and TV Broadcasting Committee of Korea

Kim Chol, Head, Pyongyang Municipal Sports Team

Go Myong Jin, Head, South Hamgyong Provincial Sports Team

Kim Myong Song, Head, Taeryonggang Sports Team

Li Chol Ryong, Head, Kangwon Provincial Sports Team

동 의 서

씨름은 예로부터 조선사람들에게 힘과 용맹, 지혜와 단결력을 키워준 민족의 귀중한 유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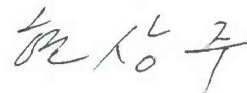
씨름은 오늘날 우리 당의 가장 올바른 민족유산보호정책에 의하여 더욱 활발히 벌어지고 있으며 조선사람들의 생활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는 한부분으로 되고있습니다.

우리는 이 유산을 인류의 비물질문화유산 대표적목록에 등록하는것이 비물질유산보호를 위한 2003년 국제협약의 정신에 철저히 부합되며 우리 나라의 비물질유산보호에 유리한 계기로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추천에 전적인 동의를 표시합니다.

민족유산보호지도국 국장 룡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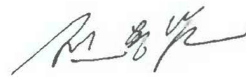
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 현상주



조선농업근로자동맹위원회 위원장 리명길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 전용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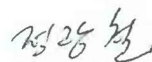
체육상 김영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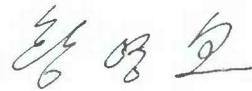
체육성 체육과학연구소 소장 함승학



조선씨름협회 서기장 정광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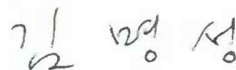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위원장 황영보




평양시체육단 단장 김철



대령강체육단 단장 김명성



함경남도체육단 단장 고명진



강원도체육단 단장 리철룡



Consent

Although the people at my home village do not know the name Ju Chang Yong, there is no one who does not know a man called “eldest man in Ssirum”

It is because I am well known to many people by training Ssirum skills in leisure times for 40 years, as a famous *phanmagi* Ssirum player and Ssirum teacher.

Though I am 74 years old now, I would like to play a game with young men when I see them playing, so it appears to me that I have loved the element all my life.

I fully support the nomination of the element on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with the feeling of great national pride.

Ju Chang Yong, farmer, Sinam Cooperative Farm,
Ryongchon County, North Phyongan Province

동 의 서

우리 고향에서는 주창영이라고 하면 알지 못해도 《씨름좌상》이라고 하면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40 여년동안 농사일을 해오면서 짬짬히 씨름기술을 연마하여 아근에서 이름난 《판막이씨름선수》로, 사람들에게 씨름을 가르치는 《씨름선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기때문입니다.

내 나이 올해 74 살이지만 씨름장에서 젊은이들이 힘을 겨루는것을 보면 아직도 그들과 어우러져 한판 겨루고싶은 젊은 마음이 불쑥불쑥 살아나고 이래서 내가 한생 씨름을 사랑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조선사람들 모두가 소중히 여기는 민족의 자랑인 씨름이 인류의 비물질문화유산 대표적목록에 추천되는데 대하여 커다란 긍지를 느끼면서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평안북도 룡천군 신암협동농장 농장원 주창영

주창영

Consent

In our local areas there are many places with long-standing tradition of Ssirum and many people who possess high skills and transmit them to the coming generations.

People in these areas are strong in rivalry in Ssirum and feel deep attachment.

In the Ssirum games over the past 10 years, our men have won most of oxen, and each time, a jubilant festival mood prevailed in our native places.

On holidays, days-off or during breaks of work they hold lively games, when the elderly and kids as well as young people unfold impressive scenes of demonstrating their skills.

Highly appreciating the nomination of Ssirum which is a valuable national heritage, on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e fully support it on behalf of all the Ssirum players, amateurs and all other people of North Phyongan Province.

Choe Jong Gon, Chairman, North Phyongan Provincial People's Committee

Song Yong Il, Chairman, Management Board of the Sinam Cooperative Farm, Ryongchon County, North Phyongan Province

Hyen Ju Nam, Chairman, Management Board of the Namap Cooperative Farm, Yomju County, North Phyongan Province

동 의 서

우리 지방에는 씨름에 전통이 있는 고장들이 많으며 또 높은 씨름기술을 체현하고 그것을 후대들에게 전달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씨름이라고 하면 어느 지방사람들에게도 지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승벽이 세고 그만큼 씨름에 대한 애착이 깊은 우리 고장 사람들입니다.

최근 10년간 진행된 수많은 씨름경기들에서의 황소는 거의나 우리 고장 사람들이 탔고 그때마다 우리 고장은 명절분위기에 휩싸이곤합니다.

우리 고장사람들은 명절이나, 휴식일, 일터의 실참에도 남녀로소 모두가 모여 떠들썩한 씨름판을 벌리는데 이때는 로인들도, 젊은이들도 지어 아이들까지 저저마다 자기의 재주를 뽐내는 인상적인 장면들이 펼쳐지곤합니다.

저희들은 우리 지방 사람 누구나 사랑하여마지 않는 민족의 귀중한 유산인 씨름이 인류의 비물질문화유산대표적목록에 추천되게 되는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평안북도안의 모든 씨름애호가들과 씨름선수들, 전체 인민들을 대표하여 그에 전적인 동의와 지지를 보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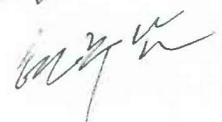
평안북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최정건



평안북도 룡천군 신암협동농장 관리위원장 성영일



평안북도 염주군 남암협동농장 관리위원장 현주남



Consent

Though I am a student specializing in sculpture, I love Ssirum very much.

When I feel tired after nightlong creative work, I play Ssirum with my friends. Then I feel youthful vigour welling up and sometimes have a sudden inspiration for creation.

There will be no young man in Korea who is not excited on the Ssirum ground where youth and strength, wisdom and courage are measured.

As a young man of Korea who loves Ssirum, I enthusiastically support and approve the nomination of the element, which we young people love and enjoy playing, on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Ko Kon, student, Pyongyang University of Fine Arts

동 의 서

저는 미술대학에서 조각을 전공하는 학생이지만 씨름을 대단히 사랑합니다.

왜냐면 창작으로 밤을 새우면서 피곤이 쌓일때 동무들과 맞붙어 씨름을 한판 하고나면
젊음과 회열이 넘쳐나고 창작의 령감이 나래치기때문입니다.

젊음과 힘, 지혜와 용맹을 겨루는 씨름경기장에서 흥분되지 않는 조선청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저는 씨름을 사랑하는 평범한 조선청년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청년들이 사랑하고 즐
겨하는 우리의 씨름이 인류의 비물질문화유산 대표적목록에 추천되는것을 열광적으로 지
지하고 찬동합니다.

평양미술대학 학생 고 건 고 건.

Consent

We participated in the *aegi* Ssirum during this year's national inter-provincial Ssirum tournament. Although young, we like Ssirum very much.

When our fathers, mothers and teachers praise us, saying we are good at Ssirum and when even grandmothers and grandfathers we are not familiar with pat our shoulders and give us delicious foods after we have won games, we really feel elated.

Our teachers have told us that Ssirum will become known across the world.

By training and studying harder we will show the world our games in the future.

Yang Jin Hyok, Ryongbuk Primary School, Taesong District, Pyongyang

Jin Hyok Il, Paeksa Primary School, Sinuiju, North Phyongan Province

Kim Song Un, Kumsa Primary School, Hamhung, South Hamgyong Province

Ju Sok Jin, Thongchon Junior Secondary School, Thongchon County, Kangwon Province

Kang Yu Hyok, Choyu Senior Secondary School, Janggang County, Jagang Province

Ko So Jin, Junghung Senior Secondary School, Samjiyon County, Ryanggang Province

동 의 서

우리는 올해에 전국도대항씨름경기 애기씨름에 참가한 아이들입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우리도 씨름을 정말 좋아합니다.

우리가 씨름을 잘한다고 아버지, 어머니들과 선생님들이 우리를 칭찬해주고 씨름에서
이기면 낫모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기특하다고 머리로 쓸어주고 맛있는 음식도 가져
다주는데 정말 그럴땐 으쓱해집니다.

우리 선생님은 우리가 하는 씨름을 온 세상이 다 알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
을 듣고 우린 다 너무 좋아서 동동 뛰었습니다.

우리는 씨름훈련도 더 많이 하고 공부도 더 잘해서 이제 크면 온 세상사람들에게 씨름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평양시 대성구역 룡북소학교 양진혁

양진혁

평안북도 신의주시 백사소학교 진혁일

진혁일

함경남도 함흥시 금사소학교 김성운

김성운

강원도 통천군 통천초급중학교 주석진

주석진

자강도 장강군 초유고급중학교 강유혁

강유혁

량강도 삼지연군 중흥고급중학교 고서진

고서진

Consent

Ssirum is a precious national heritage which is loved by not only men but also women of Korea.

When dear husbands or sons play the game displaying their courage and youthful vigour on holidays or days-off, We women prepare national foods and cheer them up.

The pleasure we feel when, wiping away the sweat from the bodies of our husbands or sons who are enjoying congratulations of the audience after winning a game and serving them fresh *makkoli* (raw rice wine) is a feeling that can be felt only in the Ssirum playing ground.

Not only as a cadre representing the Korean women but also as an ordinary Korean woman, I express full agreement with the nomination.

Kim Jong Sun, chairwoman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Democratic Women's Union of Korea

동 의 서

씨름은 남성들뿐아니라 조선의 여성들에게서도 사랑을 받는 민족의 귀중한 유산입니다. 명절이나 휴식일에 사랑하는 남편들과 아들들이 젊음과 용맹을 뽐내며 씨름경기를 벌릴 때면 우리 여성들은 풍성한 민족음식들을 준비해가지고 경기장에 가서 열기띤 응원을 하곤합니다.

경기에서 이기고 관중의 환영을 받는 남편들과 아들들의 땀을 씻어주며 시원한 막걸리를 대접할때의 즐거움과 기쁨은 정말 씨름장에서만 느낄수 있는 고유한것입니다.

저는 조선녀성을 대표하는 일군의 한 사람으로서뿐아니라 평범한 조선녀성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인민이 사랑하고 즐겨 하는 씨름을 인류의 비물질문화유산 대표적목록에 추천하게 되는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전적인 동의를 표시합니다.

조선민주녀성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정순



Consent

Ssirum is a popular folk game that all the Korean people enjoy playing.

The game played on folk holidays or in part-time during work to measure strength and skills against each other enhances fragrance unique to the nation and adds vitality to life so that one can contribute to social development with strong body and spirit.

As safeguarding, developing and transmitting folk games is the purpose of my life, it will be great if the element is inscribed on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Fully supporting its nomination, I express my determination to be engaged in the literary work for the rest of my life for the development and protection of the element.

Om Thae Jun, Sports Newspaper Publishing House

동 의 서

씨름은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즐겨하는 인기있는 민족체육입니다.

즐거운 민속명절들이나 보람찬 로동의 설참에 서로의 힘과 재주를 겨루며 승벽내기로 별리는 씨름경기는 사람들에게 조선민족고유의 향취를 더해주고 건전한 체력과 완강한 정신으로 사회발전에 이바지할수 있도록 생의 활력을 더해주고있습니다.

민족체육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고 후대들에게 전달해가는것을 필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온 저에게 있어서 씨름이 인류의 비물질문화유산 대표적목록에 등록되는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저는 씨름유산이 인류의 비물질문화유산 대표적목록 등록추천을 적극 지지하면서 남은 여생을 씨름유산의 적극적인 보호발전을 위한 저술사업을 하는것으로 매듭짓겠다는것을 피력하게 됩니다.

체육출판사 엄태준

